

요약

장기 보관한 농기계를 정밀히 점검 및 정비하고 봄 감자 싹 틔우기와 고구마재배를 위한 묘상 준비, 마늘·양파 밭의 서릿발 피해예방, 과수원 봄철 묘목 심기, 사료작물 월동 후 눌러주기 등 포장관리에 힘쓴다.

1. 벼농사

- 자가 채종한 농가와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탈망작업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활력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, 신품종을 재배할 때는 적응지역과 병해충 저항성 등 재배 특성을 파악하여 특정 병해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재배를 피하도록 한다.
- 겨우내 장기 보관했던 농기계는 봄철 사용 전 깨끗이 청소하고 점검과 정비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연료탱크, 연료관, 연결부, 엔진오일, 냉각수, 배터리 등 농기계 주요 부위를 정밀히 점검하고 정비한다.

2. 밭작물

- 밀, 보리의 웃거름 주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2월 중순~하순이며, 웃거름 주는 양은 10a에 요소비료 9~12kg으로 2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으나 노력 절감을 위해 1회에 주어도 무방하다.
-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포장은 배수구 작업을 겸한 중경제초 작업으로 겹흙의 수분증발 억제하고 줄뿌림 포장은 물을 흘러대고, 휴림 광산파는 골에 물을 댄 후 즉시 빼준다.
- 감자는 싹이 빠르고 고르게 올라오도록 산광 싹 틔우기를 하는데 파종 예정일부터 약 20~30일전(2월 중순~하순)에 실시하고 3월 상순~중순에 아주심기를 한다.
- 산광싹틔우기는 15~20℃ 온도와 습도 80~85%를 유지하고 30~50% 차광망을 설치한 온실이나 하우스에서 실시하되 낮에는 25℃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환기를 시켜주며 밤에는 얼지 않도록 보온을 실시한다.
- 씨고구마를 묻은 후 싹이 트기까지 묘상에서는 가급적 고온인 30~33℃를 유지하고 싹이 튼 후에는 23~25℃로 조절하며 충분히 관수하여 씨고구마가 마르지 않도록 한다.
- 콩 정부 보급종 종자 신청 기간이 3월 17일까지이므로 품종별 특성을 미리 알아보고 희망하는 품종을 기간 내에 시군농업기술센터, 읍·면사무소에 신청한다.

3. 채 소

- 마늘과 양파는 토양이 건조하면 찬 공기가 뿌리까지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양분 흡수 저해 및 동해가 우려되니 PE필름이 날리지 않도록 고정하고, 가물 때는 따뜻한 날 일찍 분수호스나 스프링클러로 이랑 위에 관수한다.
- 고추 육묘 중기는 본잎이 2~3매 정도 나와 묘가 왕성하게 발육하는 단계로 균형적인 생육을 하도록 하기 위해 광합성을 촉진하고 양분전류가 합리적으로 일어나도록 관리해야 한다.

4. 과 수

- 과수 묘목은 낙엽이 진 후 땅이 얼기 전에 심는 가을 심기와 이듬해 봄에 땅이 풀린 다음 심는 봄 심기가 있는데 겨울이 춥고 건조한 지역은 가급적 봄에 심는 것이 언 피해 등을 줄일 수 있다.
- 봄 심기는 뿌리가 활동하기 이전인 이른 봄에 토양이 해빙되면 즉시 심어야 하는데, 심는 시기가 늦어지면 발아가 더디고 지상·지하부 생육도 불량하므로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심도록 한다.

5. 축 산

-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축사 주위의 축대 등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보수하여 피해를 예방하고, 축사 주변은 깨끗이 청소한 후에 소독을 한다.
- 사료작물은 월동 전후에 눌러주기만 잘 해 주어도 풀사료 생산량을 최소 15%이상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땅이 녹기 시작할 때 서릿발에 의해 작물의 밑동이 솟구쳐 올라 드러나 있는 뿌리가 토양과 밀착되도록 눌러준다.